

주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2015년을 마치고 벌써 2016년도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12월 첫 주간에는 60명의 유스들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캠프를 하였습니다. 외부 강사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사이 마을 제임스 마타요 전도사도 같이 참석하였고 특히 의과대학 4년을 마친 제임스 키마니가 한 강의를 맡았는데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 마지막 시간의 질의와 응답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의 혼자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어 감사했습니다.



‘유스캠프’

둘째 주일 예배에는 6명에게 헌아식을 베풀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 출석도 잘 못하던 아빠들까지 같이 참석하여 부부가 아기를 안고 같이 기도하며 아기를 위한 축복의 시간을 함께하여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헌아식

25일 성탄절에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매년 성탄절에는 가족 찬양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도 8가정이 참석하여 즐거운 축하시간을 가졌으며 예배후 나누는 작은 선물과 만찬으로 온 교회와 마을이 작은 축제의 기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예배

올 한해도 그렇지만 지난 16년의 선교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된 일은 거의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진행된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날 동안에도 함께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참 신실하게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심에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1.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2. 새로 풀 타임으로 사역을 동역하는 사무엘 전도사가 빨리 적응하도록
3. 마사이 마이시키리아 교회에서 새로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도록

2016 1월 케냐에서 박 종렬선교사 드림